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에 나타난 남성우월의식

양영수* · 고은경**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인 관계에 나타난 여성지배의식 |
| II. 부부관계에 나타난 가부장적 사고 | V. 결론 |
| III. 모자관계에 나타난 남성중심주의 | |

I. 서론

D. H. 로렌스(D. H. Lawrence : 1885-1930)의 다양한 문학 활동에 일관하는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자기 개인의 생명적 욕구에 충실하려는 생명주의 사상과 성본능에 대한 그의 특이한 집착 그리고 기계문명에 대해 한결같이 저주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 희곡, 평론, 기행문, 그림 등 다방면에 걸친 예술 활동을 통하여 기계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개탄하고 과학기술이 초래한 현대 사회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작가이다.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 1913)』은 그의 초기의 대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 전체의 초석이 되는 근본 사상이 구현된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여성이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대결과 투쟁의 대상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어머니와 가졌던 다소 비뚤린 애정관계의 휴유증¹⁾이라 할 수 있겠다. 『아들과 연인』은 작가 로렌스의 굴절된 여성관이 다각적인 면에서 부각된 작품이며, 여기에는 또한 작가의 성장배경이었던 빅토리아조 영국 사회에 대한 로렌스 특유의 복합적인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의 가치관은 사회적인 체면(respectability)과 기독교 복음주의(Evangelicalism) 교리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체면은 종교적인 용어나 마찬가지로 독립, 절제, 중용, 예의바른 행동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으며 복음주의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강조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중문초등학교 교사

1) 김정매, 『페미니즘 소설읽기』 (서울: 한국문화사, 2003), p. 57.

하고 선행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 특히 남성들은 점잖음(prudery)과 정조(chastity)에 강렬한 집착을 보이며 이것을 여성에게 강요했다. 그 결과 빅토리아 시대 가치관은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구를 억압하는 편협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영국사회는 남성들의 고루한 인습과 우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가정에서는 성적 폭력, 사회에서는 혼란과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에서의 여성은 삶의 주체이기보다는 남성에 대한 헌신 속에서만 그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정의되었다.²⁾ 즉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능동적·주체적으로 당대의 삶을 이끌어 가는 존재는 아니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 중에서 체면이나 점잖음, 정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남성우위적 성향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 중상류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로렌스의 작품 속에 당대의 남성우월주의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음은 그의 문학의 한계를 엄연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우위주의자 로렌스의 작품이 결과적으로 여성해방적인 진보 사상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성우위적 작품 구도 속에서도 성본능의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상을 그림으로써 여성에 대한 감화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로렌스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성차별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를 페미니즘 작가의 부류에 넣어서 바라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로렌스 문학의 이 같은 양면성은 시대변화에 따른 그의 여성관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을 전후한 초기 소설부터 로렌스 문학의 본능해방적 여성상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로렌스는 그와 친분이 있는 여성들의 여권운동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아들과 연인』에서 암시적으로 재현시키고 있다. 그는 여성의 다양한 발언권과 탁월한 경험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남녀의 균형을 강조하며 여성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목표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성의 해방에 대한 문제는 무시하면서 정치적 형태의 평등에만 중점을 두는 여성참정론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날 무렵엔 남성을 여자보다 우위에 두고 자 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후에 여성들이 노동력을 앞세우고 남성들과 일자리를 공유하고 성의 자유권 등 진보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이에 반감을 갖게 된다.

결혼한 이후에는 로렌스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고, 특히 그의 애정과 성에 대한 태도에서 큰 영향을 끼친 아내 프리다 로렌스(Frieda Lawrence)에 대한 콤플렉스가 그의 남성우월주의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태생과 계층 그리고 성격의 차이 때문에 야기된 부단한 내적 투쟁과 로렌스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인해 원만하지 못한 성생활에서 그는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을 두려운 존재이자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로렌스가 작중 여성 인물들을 남자주인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머리(J. M. Murry)는 『아들과 연인』은 “충족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2) 앙드레 모로아, 『영국사』, 신용석 역, (서울: 홍익사, 1981), p. 49.

적 갈망을 보상하려는 헛된 시도이며, 모든 여자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려는 로렌스의 갈망을 보여준다”³⁾ 고 말하면서 로렌스를 새된 목소리에 히스테리 증상이 있으며 사내다움이 부족한 사 이비 예언자라고 비판한다.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을 통해 급진적 페미니즘 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밀렛(Kate Millet)은 여성혐오에 대한 새로운 각성, 여성의 새로운 존재방식 등 매우 실제적 관심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로렌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가부장적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하고 『아들과 연인』에서 작품 속의 여성들이 사회적, 심리적 독립성을 갖지 못한 채 모두 Paul의 자기중심적 욕망세계에 속해 그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한다. 즉 어머니는 광부의 아들을 그의 노동자 환경에서 격상시켜 위대한 화가가 되도록 고무하는 지지자로서, Miriam은 제자의 역할로 그의 재능을 숭배하기 위해, Clara는 그를 성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이들은 그 유용성이 사라지면 가차 없이 용도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⁴⁾

로렌스의 활동 시기 중반에 이르러 그의 사상이 남성우위주의로 변모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를 여성혐오증의 작가나 가부장적 사고의 대변자로 비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없지 않지만 『아들과 연인』에서 남자 주인공들의 오만함과 이를 뒷받침하는 나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남성우위의식에는 나중에 나타나는 가부장주의의 싹이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본 논문은 로렌스의 세 번째 장편이자 첫 번째 성공작으로 평가되어지는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에 나타나는 남성 우위 의식을 밝혀 보려 한다. 2장에서는 Morel 부부의 결혼생활 속에서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편의 모습과 무책임한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켜야 했던 부인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3장에서는 Morel 부인이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과정과, 고통과 좌절의 생활 속에서 아들에게 집착하며 삶의 모든 가능성을 그들에게 걸 수밖에 없었던 과정, 아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지만 마침내 병들어 자식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Morel 부인과 그의 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남성중심주의를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우선 Paul의 두 연인 Miriam과 Clara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무관심, 가정폭력을 통하여 아들에게 인격적 모델 제시자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한 Morel 부인의 모습과 더불어 이 같은 아버지를 통해 인격적 성숙의 기회를 갖지 못한 Paul이 원만한 이성관계에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Paul이 Miriam과 Clara와의 애정 관계에서 정상적인 이성관계 형성에 실패한 후 그 책임을 그녀들에게 전가하며 이들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Paul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편협한 여성관을 가진 채 여성들을 대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부부관계에 나타난 가부장적 사고

이 작품의 전반부에는 Morel 부인이 가부장적 결혼 제도하에서 겪는 남편과의 갈등과 이에

3) J. M. Murry, *D. H. Lawrence: Sons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31), p. 72.

4) Kate Millet,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p. 237.

다른 좌절이 잘 나타나 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신분향상 욕구가 강한 Morel 부인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열망을 성취 못하고 결국은 결혼제도 속에서 자아를 상실하는 모습은 빅토리아 시대 소설의 여주인공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에 속한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Morel 부인의 결혼 전 모습은 지적인 여성으로서 전형적인 빅토리아 조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녀의 조상은 독실한 청교도인 이었으며 그녀는 엄격한 청교주의 가풍에서 가정 교육을 받았으며 10대 소녀일 때 이미 시를 써서 지방잡지에 실렸을 정도로 지적이었다.

Morel 부인은 Gertrude Coppard라는 이름의 23세 처녀시절, 어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연히 이십 칠세의 광부 Morel를 만난다. Morel은 늙름한 체격에 용모가 준수했으며 윤기 있는 까만 머리칼에 탐스러운 턱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쾌활하고 재치가 있으며 울림 있는 웃음소리가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렸으며 Morel의 풍부한 유머에는 따뜻한 장난기가 넘쳤다.

He was well set-up, erect and very smart. He had wavy black hair that shone again, and a vigorous black beard that had never been shaved. His cheeks were ruddy, and his red, moist mouth was noticeable because he laughed so often and so heartily. He had that rare thing, a rich, ring laugh. Gertrude Coppard had watched him, fascinated. He was so full of color and animation, his voice ran so easily into comic grotesque, he was so ready and so pleasant with everybody. Her own father had a rich fund of humor, but it was satiric. This man's was diferent : sost, nonintellectual, warm, a kind of gambolling.⁵⁾

Morel역시 Coppard를 보자 그녀의 매력에 이끌린다. 작은 체구에다 섬세한 얼굴의 Coppard는 신앙심이 깊고 아름다운 순정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의 순수한 남부 발음의 말투는 Morel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She was to the miner that thing of mystery and fascination, a lady. When she spoke to him, it was with a southern pronunciation and a purity of English which thrilled him to hear . . . the dusky, gold softness of this man's sensuous flame from a candle, not baffled and gripped into incandescence by thought and spirit as her life was, seemed to her something wonderful, beyond her. (16)

Morel은 관능적이고 따뜻한 감각적 생명력과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Morel 부인은 정반대로 지적이며 순결하고 신앙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대조적인 육체적 정신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Morel 부인은 Morel이 자신이나 자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오히려 권위적이고 엄격하며 허세를 부리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Morel이 위선적이거

5)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London: Wordsworth, 1993). p. 17. 이하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만 명시키로 함.

나 거만하지 않으며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는 Morel이 노동자라는 사실에 경멸하거나 반감을 갖지 않고 광부들의 삶에 대한 그의 설명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데 이러한 그녀의 모습 속에는 계급의식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첫 눈에 반해버린 두 사람은 이듬해 크리스마스에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을 맞이한다. 그녀는 남편과의 생활에서 참다운 만족을 느끼고 서로를 굳게 뭉치게 하는 사랑과 정열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영혼을 운택케 하며 성숙한 인격을 약속하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맛보게 되어 항상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Morel 부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사이의 대조적인 계급, 생활감정, 성격, 교육 차이에서 오는 이질적인 요소들 때문에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된다.

Morel 부인은 우연히 남편이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손질하다가 호주머니 속에서 아직 지불하지 않은 가구 계산서를 발견한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그 옆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할 것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난다. 두 채의 집이 모두 저당 잡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부인은 남편에게 속은 것이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던 Morel 부인은 남편의 거짓으로 인해 남편을 불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던 인생의 신념까지 흔들리게 된다. 결혼생활을 지탱시켜주는 지주인 부부간의 상호신뢰와 존경심이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사랑에 균열이 생긴다. Morel 부인의 태도가 변하면서 Morel역시 아내에게 냉담하게 되었으며 Morel가에는 가정이 지녀야 할 작은 미덕들이 사라져간다.

Morel 부인이 처음부터 노동계급을 혐오하여 남편을 중산층의 신사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남자로 만들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그녀가 훗날 Paul과 이웃 농장을 방문하고 오면서, Leivers에 대해 함께 가축들을 돌보며 우유도 짜고 의논도 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 칭찬하며 Leivers 부인을 부러워하는 모습에 잘 나타난다. 또 Morel 부인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시장을 보아주곤 하는 Barker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듯 Morel의 동료인 Barker나 이웃농장의 농부인 Leivers 같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가 남편에게 기대한 것은 가정을 지켜 나가기 위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성실함이었다. 그러나 Morel은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남편에 대한 실망이 거듭되자 Morel 부인은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다.

Morel은 가능한 한 적은 돈을 부인에게 줌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억압으로 그녀를 힘들게 한다. 이들의 갈등에서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Morel 부인이 재정적으로 남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Morel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는 자주 술에 취해 들어오고 가정 일에는 무책임하다. 아이들을 위해 약간의 돈이라고 남겨오거나 먹을 것을 사오는 일은 거의 없으면서 아무리 수입이 줄어도 술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돈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잊지 않는다. 그는 저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아내에게도 저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Morel 부인은 얼마 안 되는 생활비로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한다.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가족 모두는 가장인 Morel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대로 방관한다면 Morel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다. 만약 그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Morel 부인은 출산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 애를 쓰고 있는데 남편은 연례행사인 축제일이 다가오자 이른 아침부터 놀러나가 하루 종일 돈을 쓰고 온다. 지치도록 놀고 밤늦게 만취하여 돌아온 Morel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난폭하게 행동한다.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걷어차 부수어 버린다. 게다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자신이며 이 집은 자신의 것이라고 부인에게 호통을 친다. Morel은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 자신이 가장으로 해야 할 도리는 다 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런 그에게 부인의 가사노동은 하찮은 것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Morel은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었으나 부인이 하루 종일 집안 일과 아이들에게 시달리며 휴일 한 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Morel이 누리는 자유는, 가사노동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인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는 자유였다.

이후 Morel이 술값을 충당하기 위해 아내의 지갑을 뒤져 생활비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그의 이기심과 무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아내에게 사과하는 대신 도리어 그녀를 위협하고 가족을 떠나버린다. 자신이 버는 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줄 알면서도 Morel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며 이를 알게 된 아이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울며 두려워한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기에 몰아넣은 그의 행동은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행동이다. Morel은 그가 가진 경제력을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Morel이 아버지로서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가정 내 폭력행사를 들 수 있다. 그는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소리를 지르고 어린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였으며 임신 중인 Morel 부인을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도 하였다.

Morel의 폭력으로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었고 집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술이 취해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발소리에 잠을 깨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대답소리와 아버지의 주먹이 탁자를 내려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다. 아이들은 Morel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Mrs. Morel에게 보다 더 가까워졌다. 또한 Morel 부부의 불화가 아이들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주었음은 물론이다. 집안에는 언제나 불행의 기운이 감돌았고 아이들은 우울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며 놀아야 할지 몰라 하며 어린 마음에도 아무런 위안거리를 찾지 못했다. 두려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며 어린 눈동자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일생을 통해 계속되었다. Morel은 아이들에게 불행의 그림자를 남기고 아내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폭력을 행사한 뒤 며칠간은 부끄러워했으나 그것이 고작일 뿐 다시 이전의 난폭한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듯 Morel은 자신은 어떤 실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만일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Morel이 한 번이라

도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녀 역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이 아내 탓이라고 고집했으며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에도 무관심했다. 심지어 자신의 폭력조차 아내의 탓으로 돌린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배려하거나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모르고 아내에 대한 애정 표시도 잘 하지 않는다. 아내가 해산하는 날에도 Morel은 자신이 피곤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가 아프다거나 집 안에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이 피곤하다는 것에 비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얼마간 휴식을 취한 뒤 산고의 고통을 치른 아내에게 향하지만 그의 태도는 예의 무관심한 것이었다. 잠시 후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의 말 대신 어색한 기운이 감돈다. Morel은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싶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방을 나와 버린다.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둘 사이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Morel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내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Morel은 장남인 William의 잘못을 밖에서 듣고 와서는 무조건 화부터 낸다. Morel 부인이 자초지종을 말해도 그는 막무가내이고 William이 들어만 오면 뼈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는 아내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도 다 알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William이 들어오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않은 채 때려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Morel은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모친 권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Morel의 경제적 횡포, 폭력행사, 무책임성이 가정에서 그를 점점 고립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고립은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Morel과 아이들 사이에는 거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Morel은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상을 타고 흥분하여 아버지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을 뿐 Morel의 반응은 덤덤하기만 하였다. Morel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였으며 가정의 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였다. 술을 끊으라는 아내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집에 늦게 들어왔으며 자신이 Morel가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신의 고립을 즐겼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보다 혼자서 식사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하루의 일과를 묻고 가족간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이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았을 것이고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이들과 벽을 쌓아 나간다.

지금까지 결혼생활 속 부부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을 통한 남성의 실력 행사, 가정 내 폭력 행사, 아내에 대한 애정 표시 소홀, 자녀 교육에서의 모친 권리 무시 등 Morel의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한 Morel을 통해 로렌스는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 구조를 잘 그려 내었고 『아들과 연인』에서 Morel의 모습을 폭력적이고 가정에 무책임한 인물로 묘사한 것은 로렌스가 자랐던 어린시절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의 영향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Ⅲ. 모자관계에 나타난 남성중심주의

자아상실의 결혼생활을 강요당한 Morel 부인은 아들들의 성공에 자신의 사는 보람을 의탁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회적 출세, 경제적 번영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성을 장남인 William을 통해 실현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수행 할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그에게 바란다. 모범적 남성상에 대한 Morel 부인의 기대는 장남인 William에게 유독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장남에게 유독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 우월적 사회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아들에게 의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남성을 여성보다

그녀는 장남인 William에게 지나칠 정도의 애정을 보이며 그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쓴다. 항상 아들의 뒤를 돌봐 주는 것, 예를 들면 차를 타 준다든지 칼라를 다림질 해 주기를 좋아하고 아들이 그 칼라를 자랑스러워하면 어머니는 그 모습에 더없이 기뻐한다.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던 William이 런던에서 연봉 120파운드나 되는 취직자리를 구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실지로 출발 날짜가 다가오자, 어머니의 마음은 절망으로 답답해지고 서글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장남인 William에게 그동안 의지하고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던 그녀의 삶이 바뀌어 지기 때문이다.

William의 여성교제는 어머니의 간섭으로 번번히 방해를 받아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가 런던에서 사귀던 연인 Lily는 생각이 부족하고 행동이 가벼운 여자로서 사랑과 잠담밖에 모르는 천박한 여성이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지나친 애정의 울타리에서 자란 William에게는 정상적인 여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처음에는 그녀의 미모에 매료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서 완전히 자기의 전부를 맡길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되었을 때 심한 갈등을 느낀다. Morel 부인은 빨래를 하는 동안에도 아들 일을 걱정한다. William이 멋지고 사치하는 아내를 데리고 적은 급료로 누추한 집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며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 결국 어머니와 애인사이에서 번민하던 William은 런던에서 칼라에 금힌 자국으로 인한 단독과 폐렴으로 죽고 만다.

Morel 부인에게 있어 장남의 죽음은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자기실현을 피하고자 하는 그녀의 희망이 깨어졌음을 의미한다. 부인이 지니고 있던 결혼 후의 자기 인생에 대한 실패의식은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한층 더 강하게 그녀를 상실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슬픔 속에서 산다. Morel 부인이 장남에게 거는 기대, 믿음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William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던 그녀의 둘째 아들 Paul이 심한 병에 걸리자 그제서야 Morel 부인은 살아 있는 아들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

으로 Paul을 간호하고 그 후부터는 둘째 아들 Paul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Paul이 태어날 때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말에 마음이 흐뭇해지는 Morel 부인의 심정 가운데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남성 우위에 대한 강박관념을 엿볼 수 있다.

Morel 부인은 Paul을 무척 애처롭게 생각하였다. 남편과의 사랑이 식은 후에 임신을 했으므로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자라면서 너무 약하여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했고, 그녀의 보살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Morel 부인은 그녀의 장남 William한테 그랬듯이 Paul의 이성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녀는 Miriam이 William의 여자였던 Lily와는 달리 Paul의 영혼까지도 차지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것이다. Morel 부인은 Miriam에게 열중해서 내적인 번민에 빠져버린 아들을 빼앗길까봐 혼자 괴로워하며 심적인 갈등에 빠져서 그녀를 몹시 증오하게 된다.

Always when he went with Miriam, and it grew rather late, he knew his mother was fretting and getting angry about him - why, he could not understand. As he went into the house, flinging down his cap, his mother looked up at the clock. She had been sitting thinking, because a chill to her eyes prevented her reading. She could feel Paul being drawn away by this girl. And she did not care for Miriam. 'She is one of those who will want to suck a man's soul out till he has none of his own left.' She said to herself: - - - Mrs Morel grew more and more worked up. (204)

아들에게 가졌던 애정이 Miriam에 의해서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즉 Miriam이 Paul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함으로써 그가 독립된 인간이 되지 못 할 꺼라는 불안은 그녀를 극도로 괴롭게 만든다. 마침내 그녀는 Paul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가질 수 없음을 깨닫고 Miriam으로 하여금 Paul의 육체적인 사랑만을 소유케 하여 자신은 Paul의 정신적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생의 의미와 보람을 얻고 있는 한, 아들이 자기의 완성을 이룩하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발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Morel 부인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그들의 사랑을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이렇게 Morel 부인은 Paul과 Miriam과의 관계에는 심할 정도의 간섭을 하고 있으면서 딸인 Annie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Annie는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다. 장남인 William, 그가 죽고 난 후 Paul의 이성 관계에는 적극 개입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서 딸은 누구를 만나고 다녀도 간섭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장면에서 Morel 부인이 지극히 아들에게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Paul과 Clara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때 Morel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묵인해 준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적대감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서른 살이나 되고 남편까지 있는 여자가 일곱 살이나 아래인 Paul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는 없을 꺼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부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였지만 이들의 공통된 만족감을 오래 가지 못했다. Paul은 Clara와의 성관계가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었으나 Clara와 육체적인 관계만은 숨겨야 했었고

그 결과 모자 사이에는 무언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자식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Morel 부인에게 병으로 인한 죽음이 다가온다. 그녀는 주먹 두 개 만한 크기의 종양이 생긴 지 오래되었으나 가난에 쫓겨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키워왔던 것이다. 암으로 인한 시한부 삶을 살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Morel 부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지만 Paul은 고통을 받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기가 너무 괴로워 그녀가 죽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안한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그녀가 먹을 우유에 조금씩 물을 탄다. 그 후, Paul은 다량의 물편 알약을 뺑아 우유 속에 넣어 어머니에게 먹게 한다.

Paul의 이러한 행동은 비록 그의 누이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한 어머니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Paul은 어머니가 고통을 받는 모습이 싫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약을 탔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Paul은 한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징적인 죽음의 상태를 겪는다.

Paul은 어머니를 따라 죽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죽기를 거부하고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혼자 극복하고 헤쳐가기로 결심하고 희망이 비치는 밝은 시내 쪽으로 걸어간다.

She was the only thing that held him up, himself, amid all this. And she was gone, intermingled herself. He wanted her to touch him, have him alongside with her.

But no, he would not give in. Turning sharply, he walked towards the city's gold phosphorescence. His fists were shut, his mouth set fast. He would not take direction, to the darkness, to follow her. He walked towards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 (366)

Morel 부인의 죽음은 그녀의 아들이자 연인으로서의 Paul의 역할도 함께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였고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는 완전한 자기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다.

Morel 부인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식에게 위로 받고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 맥레오드(Sheila Macleod)는 "Morel 부인이 남편에게 고통을 당한 뒤, 자식들을 통하여 기쁨과 힘의 원천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⁶⁾고 보았는데 이 지적처럼 Morel 부인의 삶이 아들들에게 의존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사실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고 그녀가 죽고 나서야 Paul이 자기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을 볼 때 Morel 부인이 지나치게 아들에게 의존하여 살았던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또한 Morel 부인이 아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6) Sheila Macleod, *Lawrence's Men and Women* (London: Heinemann, 1985), p. 23.

IV. 연인 관계에 나타난 여성지배의식

Paul과 Miriam의 관계는 실제로 로렌스가 해그즈(Haggs) 농장에서 요양 할 때 사귀었던 농장주의 딸 제시 체임버스(Jessie Chambers)와의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 제시는 로렌스의 작품 활동에 정신적인 지주로서 실질적인 협조를 했는데도 이 소설의 완성과 함께 그녀와 멀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로렌스와 제시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Paul과 Miriam과의 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iriam을 알게 된 것은 그가 15세였을 때 Morel 부인과 함께 Leivers 가족이 사는 윌리(Willy)농장을 방문하면서부터였다. Paul이 Miriam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더러운 앞치마를 두른, 검은 얼굴에 까만 머리와 까만 눈을 한 소녀였으며 낯선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수줍은 많은 소녀였다. Paul은 Miriam을 처음 대면한 날, Miriam이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놀림 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본다. 그녀는 매일 매일 더러운 앞치마를 걸치고 오빠들이 어질러놓은 것들을 치우며 집안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다.

Miriam이 식사를 준비하다 실수로 감자를 태웠을 때 가족들이 그녀를 구박하는 장면은 그녀가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나타내 준다. Miriam이 실수로 감자를 태운 것을 안 그녀의 오빠 Edgar는 감자 하나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애를 무엇 하러 집에 두느냐며 그녀를 모욕하고 Moris는 식기실에 남겨진 음식을 먹여치우기 위해서라고 응수한다. 그들이 Miriam이 받을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Miriam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동안에도 Leivers 부인은 한 마디의 주의도 주지 않은 채 난잡한 식탁에 성인(saint)처럼 아무런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오빠들로부터 받는 멸시를 견디다 못해 Miriam이 그들에게 대들자 Leivers 부인은 오히려 Miriam을 나무란다. Leivers 부인은 남자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고 거기에 대꾸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다른 빵마저 내 주라'는 성서의 교훈은 힘없는 약자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Leivers 부인이 채택한 여성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상대방이 행동한 대로 돌려주는 대신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라고 여기며 종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

Leivers 부인의 생활방식은 어찌 보면 한 차원 높은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안이 없는 삶 속에서 무기력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일종의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 살가도(Gamini Salgado)는 "이들의 종교성이 고되고 무의미한 여성 현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았다.⁷⁾ 여자들은 남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을 지켜야 했으며 여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기란 어려웠다. 지루한 고역이 반복되는 삶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한데 Leivers 부인의 종교적 신앙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Miriam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성은 여성억압의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7) Gamini Salgado,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69), p. 105.

하며 따라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을 그녀의 본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Miriam은 남자와 여자가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Paul은 그의 누이 Annie가 딸이 아들에 비해 책임감이 가볍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만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반해 Miriam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란다. Paul은 Miriam이 남자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남자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Miriam은 Paul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여자에게도 남자들이 가지고 있듯이 배움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가능성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Paul은 여자는 여자의 현실에서 남자는 남자의 현실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사 일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노동으로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시 여성들은 가사 일만 돌보도록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야기되어 있었다.

Miriam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Paul의 여성 지배 의식은 때로 지나친 잔인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들의 수업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Miriam에게 불어 작문을 가르치느라고 일기를 쓰게 하던 Paul은 그녀의 일기가 결국 자신에 대한 연서임을 깨달으나 짐짓 무시한다. Paul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Miriam이 여자로 느껴질 때마다 다시 그녀에게 잔인해 지곤 하였다. 대수를 가르치면서 Paul은 Miriam이 내용을 빨리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면박을 준다. Miriam은 진도가 너무 빨라 Paul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가 화가 난 것을 알고는 마음이 더욱 위축되어 두려움에 떨다.

Paul은 Miriam에게 불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일에서 항상 그녀를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동등한 관계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Paul은 남성 우위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Miriam을 어디까지나 제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싶어 한다. 그녀가 동등하거나 우월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Paul에게는 패배이며 가장 두려워하는 여성의 생명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Paul은 Miriam에게 배운 것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능력이 부족하다고 다그친다. 또한 Paul이 Miriam의 얼굴에 연필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력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Paul이 지닌 폭력성을 나타내는 이 장면은 우리가 Mr. Morel을 통해 이미 보았던 낯익은 장면이다.

Paul이 보이는 이러한 성질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Morel가의 아이들은 그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준 아버지를 미워했으며 특히 예민한 Paul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민감했기에 더 한층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을 내면화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Paul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 자녀들을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지나 의식에 반하여 자신이 보고 자란대로 똑같이 여성과 자녀들을 학대한다. 이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은 이들이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성장하여 그 영향아래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데다 자신이 따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을 얻지 못해 올바른 자아상과 인격 형성을 이를 기회를 상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Paul은 무의식적으로는 아버지의 폭

력성을 나누어 받았으며 의식적으로는 어머니의 불행을 동정한다.

아르카나(Judith Arcana)는 “Paul이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패턴과 행동을 배웠다”라고 주장한다.⁸⁾ 결국 Paul은 불안정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의 긍정적 남성상의 결핍은 Paul로 하여금 남자다운 남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Paul이 자신의 첫사랑인 Miriam에게 보였던 잔인함이나 두 번째 애인 Clara에게 보였던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Paul이 Miriam과의 사랑을 부인하고 그녀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과는 달리 Miriam은 Paul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녀는 한 순간의 열정으로 그치고 말 열병 같은 사랑이 아닌 진지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Paul은 Miriam을 싫어하는 어머니의 반대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가 평가하는 Miriam에 대한 편견을 수용하여 Miriam을 미워한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결정을 맡겨 버린 것이다. 결국 Paul은 Miriam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결별 후 Paul이 Miriam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그녀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Paul은 Miriam을 수녀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녀를 떠나는 것은 전적으로 평범하고 건강한 여성성이 결여되어 있는 Miriam 때문이지 자신이 남녀관계에서 남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일정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수녀로서의 Miriam에게 어울리는 것을 바쳤으며 그것으로 그녀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Mr Morel이 자기 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듯이 Paul 역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Paul은 Miriam에게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 그는 이제까지와 달리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더 이상 Miriam을 만나는 것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그녀에게 결혼을 청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독점물이 된다는가 누군가가 자신의 전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였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이이면 완전히 서로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면 Miriam에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한다. 그는 막연한 결혼 약속만으로 그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참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Miriam은 Paul이 원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괴로움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Paul의 사랑을 믿고 그를 만족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Paul은 Miriam이 기쁘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희생하듯 몸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한다. 그는 이유를 묻는 Miriam에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신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지껏 수없이 결혼을 제의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고 따지는 그녀에게 Paul은 헤어지자는 말만을 반복한다. 열렬히 호소하던 Paul의 사랑은 책임감 없는 불장난으로 끝나고 만 것

8) Judith Arcana. *I Remember Mama: Mother-blaming in Sons and Lover's Criticism*. (East Essex: Helm Information, 1992), p. 151.

이다. Paul은 겨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Miriam이 자신에게 육체적 만족을 얻기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쉽게 Paul과의 혼전관계에 몰입하기 못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라는 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aul은 아내가 아닌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란 자신의 요구에 응할 때 Miriam이 얼마나 당시의 현실을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 주었는가에 대해 아무런 자각이 없다. Paul은 그녀가 겪는 정신적, 현실적 어려움에 대하여 무지할 뿐이며 그에게서 두려워하는 Miriam을 안심시키고 배려하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녀가 보이는 반응이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인데도 도리어 Paul은 마치 그녀가 성적으로 불능이라는 듯 원망한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것이 곧 그녀의 생명력 없음의 징표인 양 비난한다. 처음에 Paul이 Miriam을 떠날 때는 그 이유를 어머니에게 돌렸다. 하지만 이번은 어떠한가? 사랑을 호소하며 강하게 육체관계를 요구했던 Paul은 Miriam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후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하다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한다.

Paul은 직업을 갖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Miriam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밀렛은 "Paul은 Miriam이 바래왔던 사회적 갈망이 이루어진 것을 존중하기는커녕 여성이 자신의 일을 갖는다는 것은 남성의 경우와 다르다며 자신의 불평등한 여성관을 드러내고 있다"⁹⁾고 보았다.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 Miriam이 이런 Paul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간의 안부를 묻고 나서 Miriam은 Paul에게 결혼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Paul은 그녀가 너무 소유적이라며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Miriam이 자신에게 '너는 내 것이야'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난한다. Paul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이중성과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있는 그대로의 Miriam은 정신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니며 순수하고 진지하게 Paul을 사랑한 정상적인 젊은 처녀이다. Paul과 Miriam의 관계가 실패로 끝난 것은 그녀에게 보다 Paul에게 원인이 있었다. 부모의 불화와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긍정적인 남성상과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성장하였던 것이다. Paul은 이성 간에 필요한 상냥한 상호배려와 책임의식을 외면하고 모든 탓을 Miriam에게 돌리며 그녀의 희생적 사랑을 배반하는 남성의 이기심을 보여주고 있다.

로렌스는 Paul과 Miriam이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하면서 그녀와 대조적인 Clara라는 여인을 등장시켜 또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Miriam이 제시 체임버스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Clara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니벤(Niven)은 로렌스의 아내인 프리다와 그의 첫 번째 약혼녀 헬렌 코크(Helen Cokre)와 루이 버러우즈(Louie Burrows) 그리고 알리스 닉스(Alice Dax)를 혼합하여 만든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한다.¹⁰⁾

물론 Clara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여권 문제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시대가 배출한 여성이나 작품 속에서는 그녀가 페미니스트이며 여성 참정권자라는 사실에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

9) Millett, p. 252.

10) Alastair Niven, *D. H. Lawrence : The Novles* (Cambridge: Cambridge UP, 1978), p. 55.

는 작품 속에서 Paul이 Clara를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는데 Paul은 그녀가 여성 참정권자라는 사실로 그녀에게 흥미를 갖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Clara는 한 인간으로서의 살아있는 전체적 모습 대신 하나의 측면만이 그녀의 전부인양 확대되며 Paul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지만 Paul에게서 버림을 당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Miriam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Paul이 처음으로 Clara를 본 것은 그녀가 Miriam과 걷고 있을 때였다. Paul은 Miriam의 움츠러든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신감 있고 자기주장이 뚜렷해 보이는 Clara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Clara는 당당한 어깨에 키가 컸으며 Paul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상대방을 비웃는 듯한 회색 눈에 하얀 벌꿀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자들을 비웃기 위해서인지 키스를 받고 싶어서인지 위로 입술이 약간 들려져 있었다. Paul은 Clara가 지닌 성적 매력을 인식했으며 Miriam은 Paul의 남성적 기질이 발동하고 있음을 알았다. 심슨(Simpson)은 "Clara가 Paul에게 무관심하자 그의 인식이 더욱 복잡적으로 되었다"¹¹⁾고 보았다. 자신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한층 Paul로 하여금 Clara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Paul의 눈길을 끄는 것은 Clara의 육체가 지닌 아름다운 성숙미이다. 그녀의 가슴이나 어깨의 곡선, 드러난 팔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만남을 묘사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밀렛은 "Clara는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¹²⁾이라고 보았다. 밀렛에 의하면 Paul에게 Clara는 남근을 시기하고 남성을 증오하는 호전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정치적 행동가로 비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존재로 Paul을 유혹하는 인물이다. Clara가 남편과 별거중이며 여성 운동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 때문에 Paul은 그녀를 영리하다고 생각 하고 흥미를 갖는다.

Clara는 육체적 아름다움만 지니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Paul의 그림을 보고 칭찬하며 감상할 줄도 알았으며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판할 줄도 알았다. Clara는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히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공장에서 만드는 양말은 완벽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에게는 Miriam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Paul을 상담하고 그에게 문제점을 짚어 줄만큼 세심한 통찰력이 있었다. Clara는 머리가 비고 육체만 있는 여성이 아니다. Miriam이 그러했듯이 그녀 역시 여성에게 주어진 답답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움을 열망하였으며 독학으로 불어를 습득한 지적인 여인이었다.

20세기 초 영국 사회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확대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활동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과 그들을 제한하는 사회적 억압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Clara는 연단에서 연설하는 여성 참정권론자였으며 결혼 전부터 여성 운동에 참여하여 십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여성 운동에 활동하고 있었다. Clara는 폭력과 외도의 문제로 남편과 몇 년째 별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 결혼에 대한 전통을 과감히 깨는 행동이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선구적인 여성이었다. Paul은 Clara를 통하여 노팅엄에 있는 사회주의자, 여성 참정권론자, 단일 정부주의자들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

11) Hilary Simpson, *D. H. Lawrence and Feminism* (London: Croom Helm, 1982), p. 32.

12) Millett, p. 253.

Paul은 인간의 권리와 평등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인 인사를 여자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차별의 시각에서 비하시키고 있다. 그녀를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보고, 성적인 대상과 집안의 살림꾼으로만 애써 축소하려는 그의 태도의 이면에는 강력한 여성운동가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들어 있다. 한편 대화의 상대인 Clara는 말과 행동으로 여성의 해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유형의 인물이다. 인격적으로 못나고 구타를 일삼는 남편과 별거하여 여성의 부당한 사회적 처우에 민감한 그녀는 당대의 용감했던 여성주의 생활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녀에게는 내세의 천국 운운하는 것보다 당장에 사회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현실이 더 절실하다. 내세에 대한 달콤한 말을 쉽게 따르기에는 현실의 울분과 부당함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여자인 것이다.¹³⁾

Clara는 Paul이 Miriam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에게 상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정하라고 충고한다. 이를 볼 때 Clara는 Paul과 대등한 관계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녀가 Paul의 반려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기존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친구의 부탁으로 Clara의 집을 방문한 Paul은 누추한 곳에서 레이스 더미를 쌓아놓고 가내 노동을 하는 초라한 그녀의 모습을 본다. Clara는 자신의 누추한 처지를 보여주게 된 것을 당황 해 하지만, 오만하고 당당한 페미니스트의 초라한 현실을 보게 된 Paul은 그녀가 자신에게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허물길 기대한다. 이 장면에는 당시 노동계급 여성의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Clara의 고개는 노동의 굴욕 속에 숙여지고,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 찬 몸은 기계적인 노동의 리듬에 종속되어 있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 강요된 산업사회의 노동의 단조로움과 무자비함을 보여준다. 자신의 고용인이자 연인이 될 남자 앞에서 맨 살을 드러내고 고개를 숙여 땀 흘리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노동의 굴욕과 성의 굴욕이 섞여 있다. 그러나 여성의 현실이라는 이 주제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으며 Clara는 남자 주인공에게 단지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Clara를 자기 회사의 여 감독 자리에 알선하여 함께 일하게 된 Paul은 그녀의 오만한 태도가 변하길 기대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다. 공장 여공들에게 우상이나 다름없던 Paul은 그녀의 이런 태도에 자존심이 상하여 비열하게 직장상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려 든다.

'That doesn't matter, so long as it pleases me. Here, I say you seem to forget I'm your boss. It just occurs to me.'

'And what does that mean?' she asked coolly.

'It means I've got right to boss you.'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complain about?'

'Oh, I say, you needn't be nasty,' he said angrily.

'I don't know what you want,' she said, continuing her task.

'I want you to treat me nicely and respectfully.'

'Call you "sir", perhaps?' she asked quietly.

13) 김정매, p. 62.

'Yes, call me sir". I should love it.'
'When I wish you would go upstairs, sir.' (232)

이제 Clara는 Paul을 사랑하게 되어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으나 Paul은 걱정의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도 낮 동안에는 그녀를 잊어버린다. 그는 Clara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였지만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으며 Paul에게 그녀의 존재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는 냉담하고 무뎠게 Clara를 대했으며 사랑의 표현과 따스한 시선을 기대하는 그녀에게 사무적으로 지시사항을 전할 뿐이었다. 처음에 Clara에게 구애할 때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녀를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 Paul이 Clara에게 몰두하던 처음에도 그녀를 진실하게 사랑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Clara와 함께 공공연히 다니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생각해서 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Morel 부인의 충고에 이미 그녀는 남편과의 별거로 구설수에 올라있으니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I think you ought to consider her.' well, my dear, she lives separate from her husband, and talks on platforms: so she's already singled out from the sheep, and as far as I can see, hasn't much to lose.

우리 모두 값을 치러야 한다는 Paul의 말(No: her life's nothing to her, so what's the worth of nothing? She goes with me-it becomes something. Then she must pay-we both must pay! 238)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다. Paul이 가지고 있는 성애의 개념은 두 사람 모두 동등해야 하며 자유로이 정열의 불길로 뛰어 들 수 있다는 것으로 평등한 남녀 관계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사회가 남녀의 성관계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 윤리를 간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사랑과 성에 더 많이 매여 있으며 사회는 성관계가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된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Paul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Clara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레이터 역시 그의 이기심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Clara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나레이션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이는 Paul의 이기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에 동의한다. 스피카(Mark Spilka)는 "Clara가 자신의 여성성을 갈망하면서도 부인한 현대페미니스트의 초기 형태이며 그녀가 결국 Paul의 진정한 반려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소유욕과 그에게 균형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¹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Paul과 Clara의 관계를 볼 때 정작 소유욕으로 균형감을 잃은 인물은 Clara가 아니고 Paul이다. Paul은 Clara를 집으로 초대 한 뒤 배웅하는 길에서 그녀가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고 돌아가 버리자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며 사고 불능 상태에 이른다.

'There he lay face down on the counterpane, and shed tears of rage and pain. There was a physical pain that made him bite his lips till they bled, and the chaos inside him left him

14) Mark Spilka., *The Love Ethic of D. H. Lawrence* (London: Indiana UP, 1955), p. 226.

unable to think, almost to feel. 'This is how she serves me, is it?' he said in his heart, over and over, pressing his face in the quilt. And again he hated her. (297)

사랑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 심지어는 '싫다'는 말까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미성숙한 Paul은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극도의 소유욕을 드러내며 혼돈의 상태에서 Clara를 증오한다. 언제나 Paul에게 Clara는 육체를 가진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Paul에게는 Clara가 자신의 욕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만이 의미가 있었다.

Paul은 자신의 성적욕구가 절박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을 언제든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바닷가에서 휴가를 함께 보내면서 Paul은 멀어져 가는 Clara를 바라보며 그녀를 해변의 흰 조약돌에서 작은 거품으로 다시 지극히 작은 흰점으로 대상화한다. 밀렛은 "Paul이 자신을 신이라도 되는 듯 여기며 Clara를 축소하고 대상화하여 비인격화하고 있다"¹⁵⁾고 보았다.

Paul이 Clara와 함께 지낸 밤의 열정이 토요일의 울음소리와 별들의 운행까지 포함하는 우주적인 합일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Paul의 가슴속에 Clara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남아있지 않았다. Clara는 그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Paul의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 Clara는 Paul이 밤에만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Paul에게서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얻지 못하였다. 그녀는 Paul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직장에서도 그에게 매달린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Paul의 허리에 손을 들렀으며 지하실로 들어가는 Paul을 따라가 짧게 입 맞추었다. Clara의 시선은 항상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을 담고 Paul을 향해 있었다. Paul은 Clara가 다른 여공들 앞에서 그녀의 감정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하여 Clara를 경계하였다. Clara는 일정하게 저녁시간이면 기다리고 있다가 Paul에게 안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그녀를 Paul은 구체 불능으로 여기고 부담스러워 했다. Clara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지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잃고 한 남자의 마음을 잡지 못해 안달하며 스스로의 세계를 포기한 채 그 남자에게서만 자신의 존재성을 찾으려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렛은 "Clara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단정치 못한 여자로 변모하여 이제 그들의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 흔히 있는 남녀관계, 즉 직장 내의 상사와 부하 여직원의 성 관계를 닮아 있다"¹⁶⁾고 보았다. 이전에는 작업시간 중에도 다가와 말을 걸며 관심을 끌려 하던 Paul이 이제 부하 직원인 Clara에게 일하는 시간에 사랑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권위있게 설교한다.

'But what do you always want to be kissing and embracing for?' he said.
'Surely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She looked up at him, and the hate came into her eyes.
'Do I always want to be kissing you?' he said. 'Always, even if I come to ask you about the work.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love when I'm at work. Work's work'
'And what is love?' she asked. Has it to have special hours?

15) Millett, p. 254.

16) *Ibid.*, p. 255.

'Yes: out of work hours.' 'And you'll regulate it according to Mr. Jordan's closing time?'

'Yes: and according to the freedom from business of any sort.' 'It is only to exist in spare time?'

'That's all, and not always them - not the kissing sort of love.' (309)

Paul에게는 상황에 따라 밤과 낮이, 사랑과 일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Paul에게 있어 상대방은 육체적 관계가 끝나면 아무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Clara는 이런 Paul의 모습 속에서 그가 자신을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며 Paul과 함께 있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Clara는 자신이 얻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데서 오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Clara가 항상 불만족스러워 하고 안달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이 일방적인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지, 그녀가 병적인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Paul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도 무언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야 했다. Paul은 Clara를 통하여 자신이 얻은 만큼 그도 스스로의 것을 포기하여 Clara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며 사랑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는 그의 아버지 Morel이 보여주었던 이기적인 모습이 Paul에게 끼친 영향이었다.

상대방의 인격적 필요를 외면하고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면서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이 점점 그 힘을 잃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 Paul과 Clara는 점점 이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점차 기계적인 노력이 두 사람의 사랑을 망치게 되었다. 그들은 황홀한 순간을 맞이한 때에도 때로 때로 즐겼으며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Paul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은 실패감을 맛보았다. Paul과 Clara는 만족감을 되찾기 위해 자극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기계적이 되었고 매력을 잃어갔다.

Paul은 Clara의 진지한 물음을 실없이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라 여기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열을 가장하여 입맞춤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린다. 이후, Paul은 Clara와 부담 없이 맺은 관계에 실증을 느끼고 그녀를 전 남편에게 되돌려 보내고자 한다. Paul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지성과 품위를 갖추었으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Clara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의 의무는 무시하고 자신이 편한대로 Clara를 대해온 Paul이 이제 Clara에게 상대방을 있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충고를 한다. 게다가 Paul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Paul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나레이터는 이 젊은 남자에 대한 정열이 Clara의 영혼을 충족시키고 만족을 주어 그녀로 하여금 자기불신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을 얻은 것같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작가는 Clara가 Paul과의 관계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고 말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Miriam과의 관계에서처럼 Paul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처음 등장할 때 보여준 날카로운 지성과 자신만만한 모습을 잃고 Paul의 앞뒤 맞지 않는 충고에 수긍하도록 변한

Clara의 모습을 볼 때 이 기묘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Paul은 Clara와 Baxter의 재결합을 주선하는 자리를 만든다.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Clara와 별거 중이던 남편과 화해시키는 장면은 연하의 Paul에게 인생의 스승이라는 특권마저 부여하고 있다. Paul이 여권운동가인 Clara를 순화시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장면은 작가 자신이 Mrs. Morel에게 남편 개조의 기회를 허용치 않는 처리와는 다르게 남자인 Paul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허용한 것으로 로렌스의 성차별적인 역할분배를 보여주고 있다. Baxter와 Clara의 재결합은 지금까지 묘사되어온 Clara라는 여성의 성격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들의 재결합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재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Paul의 진실한 사랑을 얻지 못하여 지쳐버린 상태에서 Clara가 내린 결정이다. Clara는 Baxter를 사랑하지 않았다. 결코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Baxter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믿었다. Clara는 Paul과 함께 있을 때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확신감을 Baxter에게서 느꼈으며 Baxter가 Paul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알아주리란 생각으로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패의 원인을 돌려왔던 방식대로 Paul은 Baxter에게 Clara 때문에 자신과 그녀와의 관계가 실패하였다고 설명한다. Clara는 Paul과의 관계를 통해 남자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되어 이제는 남자가 덜 무서워졌으며 자신감도 생기고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들이 왜소한 이기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과 남편을 재결합시키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는 Paul에게서 그의 왜소함과 이기심을 본다.

그러나 나레이터는 Clara가 Baxter에게 다시 돌려보내지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였던 것이라며 Paul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Paul의 이기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Clara의 무의식을 끌어내어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로렌스가 Clara라는 인물을 취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표하는 평자는 적지 않다. Paul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개성을 지닌 Clara를 그녀의 지성과 고민들은 외면한 채 육체만 취하였다. Paul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한 여인들을 추상화함으로써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결국 Paul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성격이 그의 이성관계를 실패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을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V. 결 론

『아들과 연인』은 로렌스의 출생시부터 성장기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기초로 한 자서전적인 소설이다. 로렌스는 자기가 실지로 경험한 모든 사건들을 사실 그대로 투영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재구성하고, 사생활의 단순한 묘사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생명감을 불어넣어 인간 욕망의 깊은 심연에서 들려오는 근원적인 목소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작가 자신과 작품 주인공

공간의 동일시 문제 등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해 왔다. 『아들과 연인』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가 투영된 Paul의 묘사로 인하여 받게 된 로렌스의 평가는, 로렌스는 남성 우월주의 작가이며 여성 인물은 남성 심리의 검토 과정이란 목적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로렌스는 여성 심리를 완벽하게 표현해 낸 작가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의 여성의 삶에 대한 총체적 조명 앞에 그의 남성우위적 사고는 부분적인 과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들과 연인』에서 보여 지고 있는 남성중심적 내지는 여성지배의식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들과 연인』의 전반부에는 가부장적 결혼제도에서 겪는 부부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사랑의 좌절이 묘사되고 있다. 지적인 능력과 사회적 신분 상승의 열망이 있는 Morel 부인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 Morel 역시 가족들 간의 진정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자아의 상실과 자연적 욕구의 좌절을 겪고 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Morel 부인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장남인 William에게 극진한 애정을 보이며 그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William이 폐렴에 걸려 죽자 그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슬픔 속에서 산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던 그녀의 둘째 아들 Paul이 심한 병에 걸리자 그제 서야 Morel 부인은 살아 있는 아들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Paul을 간호하고 그 후부터는 둘째 아들 Paul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든 기대를 받고 자란 Paul에게는 바른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Paul은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개체성이나 고유성 및 독자성을 인정해 줄 수 없고, 육체와 영혼의 합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므로 하나가 배제된 상태에서 교제를 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이 자신의 틀 속에 상대방을 짜 맞추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Paul이 연인이었던 Miriam의 곁을 떠나는 것은 그녀의 지성을 자신을 옥죄이는 굴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냉각된 사랑에 대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인 Miriam의 성적 냉담은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Miriam에 대한 Paul의 폭력적인 언행과 냉담함은 여성의 막강한 힘에 대한 그의 숨은 공포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렌스 자신이 실제 삶에서 쉽사리 여성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남성의 우월성을 여성들이 신봉하는 것으로 묘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Clara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할 만큼 과감하고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 역시 Miriam이 그러했듯이 억압된 여성 현실에서 벗어나고 배움을 통한 자기 발전을 열망하여 독학으로 외국어를 익혔으며 여성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Paul은 이러한 Clara의 모습에 흥미를 갖게 되나 그녀가 갖고 있는 개성이나 사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Clara는 Paul에게 진정한 사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Paul은 그녀의 육체만을 사랑한다. 그의 이러한 사랑에 Clara는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을 느끼게 되고 이 둘의 사랑은 점차 매력을 잃어간다. 이제 Clara와의 관계에 실증이 난 Paul은 그녀를 다시 남편에게로 돌려보낸다.

Miriam과 Clara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Paul의 태도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는 자신이 맺은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Paul은 자신의 왜

곡된 심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Miriam과 Clara의 욕구를 단순화 시키고 있다. Paul은 좁은 시야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남녀평등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좀 더 폭넓은 맥락에서는 여성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그 특수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Paul은 Miriam과 Clara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이성관계 형성에 실패한 후 그 책임을 그녀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우월감을 가진 채 여성들을 대하고 있으며 편협한 여성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로렌스에게 여성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관심을 끈 것이 아니라 이용가치가 있어야 흥미를 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는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한치의 양보없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하며 여자의 개성과 욕구를 노골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Paul의 Miriam과 Clara에게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로렌스는 실제 생활에서 명석한 여자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아들과 연인』에서 로렌스는 종종 여성인물을 남자에게 파멸적이고 숨을 조이는 힘을 발휘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여성이 없었으면 그는 한 인간으로, 한 작가로 성장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여성은 그에게 창작을 가능케한 영양분이며 영감이며 비전이었고 그와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다. 어머니가 그러했고 그가 결혼한 프리다 역시 그러한 인물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는 꾸준하게 남녀관계의 여러 양상을 탐색하며 상상의 모험을 시도했던 것이다.

Bibliography

1. Text :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London : Wordsworth, 1993.
2. References

Arcana, Judith. *I Remember Mama: Mother-blaming in Sons and Lovers' Criticism*. East Esex: Helm Information, 1992.

Blanchard, Lydia. *Lawrence and Women*. New York: Barnes & Noble, 1978.

Chambers, Jessie.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Cambridge: Cambridge UP, 1980.

Dix, Carol. *Lawrence and Women*. London: Macmillan, 1980.

Fielding, M. L. *Notes on Lawrence's Sons and Lovers*. London: Methun Paperbacks, 1976.

Freeman, Mary. *D. H. Lawrence: A Basic Study of His Ideas*. Florida: Rose, 1955.

Kelsey, Niegel. "Sons and Lovers." *D. H. Lawrence: Sexual Cri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Leavis, F. R. *D. H. Lawrence: Novelist*. Harmondsworth: Penguin, 1955.

Macleod, Sheila. *Lawrence's Men and Women*. London : Heinemann, 1985.

Millett, Kate.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Murry, J. M. *D. H. Lawrence: Sons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54.

Murfin, Ross. *Sons and Lovers: A Novel of Division and Desire*. Boston: Twayne, 1987.

Moynahan, Julian. *Sons and Lovers: Text, Background, and Criticism*. New York: Penguin, 1968.

Moore, Harry T. *The Priest of Love: Celebrated Life of D. H. Lawrence*. London: Great Britain, 1974.

Niven, Alastair. *D. H. Lawrence: The Novels*. Cambridge: Cambridge UP, 1978.

Sagar, Keith. A. *D. H. Lawrence HANDBOOK*. NY: Manchester UP, 1982.

Salgado, Gamini.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69.

Simpson, Hilary. *D. H. Lawrence and Feminism*. London: Croom Helm, 1982.

Spilka, Mark. *The Love Ethic of D. H. Lawrence*. London: Indiana UP, 1955.

Vivas, Eliseo. *D. H. Lawrence, The Failure and the Triumph of Art*. Evanston: Northern UP, 1960.

김동선 외. 『D. H. 로렌스』. 서울: 민음사, 1979.

김정매. 『페미니즘 소설읽기』. 서울: 한국문화사, 2003.

로렌스 크랩. 『결혼 건축가』.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0.

앙드레 모로아. 『영국사』. 신용석 역. 서울: 홍익사, 1981.